

face



김달진

미술계의 조나단 리빙스턴 시절 | 김달진 미술연구소 소장

★ 한국의 현대 미술 자료를 수집하는 김달진 소장이 지난해 12월 그간 자료실장으로 몸담았던 가나아트센터를 떠나 그의 이름을 내건 '김달진 미술 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미술 자료를 모아 최소한 해방 이후부터라도 미술사를 바로 세우기 원했던 김달진 소장.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은 과거가 밀받침된 자신감과 미래를 향한 확실한 포부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 내심 부러움이 일었다. 움직이는 기록실, 금요일의 화랑 순례자, 미술 자료 수집 인간 컴퓨터, 미술계 숨은 파수꾼 등 그를 칭하는 다양한 호칭 만으로도 미술계에서의 그의 위치와 역할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열심히 모았던 그가 중학교 시절부터는 미술 자료에 관심을 두고 수집하기 시작했으니 일찌감치 자신의 길을 찾은 듯하다. 몇 년 간 잡지와 신문에서 오려내 정리한 자료집 15권을 들고 홍익대 이경성 박물관장을 무작정 찾아갔던 72년에 그는 아직도 어린 고등학생이었고 미술 자료

보관에 관심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81년 국립 현대 미술관의 전시과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온갖 자료에 파묻혀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 왜 그렇게 즐겁던지 16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사람은 반 토막으로 살아가나 봐요. 다른 기억은 잘 못 해도 미술 자료 분야에 관련해서는 기억력이 우수해요. 사실 눈뜨면 그 일이 전부이고 낙이나... 천직이지요." ★ 젊은 시절에는 편집적인 자료 수집광이었다. 전시장을 다니며 도록을 수집하고 전시 작품과 도록을 비교했으며 심지어 전시 작품 수까지도 도록에 기록해 두었다. 광복 이후 자료는 청계천을 다니며 뒤졌고 잡지를 살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관련기사가 실린 부분만을 뜯어서 팔라고 떼를 썼던 적도 있다. 지금 그가 걸어 다니는 미술 대사건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된 것도 그 덕분. 그러나 지금은 방대한 모든 자료를 혼자 수집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노하우' 보다는 자료가 어디에 보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노 웨어(know where)'가 중요함을 느꼈다. ★ 2002년 1월 1일 그는 월간 '서울 아트 가이드' 창간호를 발행함으로써 연구소의 첫 결실을 보았다. 이전 6년간 '서울 전시회 가이드'라는 제호로 화랑가에 배포되었던 미술계 소식지를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이다. ★ 고등학생이 된 만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아빠의 모습에서 그의 미래를 본다. 나는 가끔 갈매기 조나단과 우리 아빠를 비교한다. 조나단이 친구들의 비웃음으로 고달팠던 것같이 우리 아빠도 미술 자료를 수집하며 고달팠다. (중략) 조나단이 자신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듯 아빠도 자신의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아빠와 조나단같이 나도 자존심 강하고 의지가 굳고 착하며 약간 바보 같은 똑똑이가 되어야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것 같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절. 그는 영웅이며 성공한 갈매기이다. ★ 에디터 · 이상정 / 사진 · 배태열